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송골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맷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30cm, 부리의 길이는 2.7cm 정도로 독수리보다 작으며 등은 회색, 배는 누런 백색이다. 부리와 발톱은 갈고리 모양이며, 작은 새를 잡아먹고 사냥용으로 사육하기도 한다. 천연기념물 정식 명칭은 '매'이다.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15세기	4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송골'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맷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30cm, 부리의 길이는 2.7cm 정도로 독수리보다 작으며 등은 회색, 배는 누런 백색이다. 부리와 발톱은 갈고리 모양이며, 작은 새를 잡아먹고 사냥용으로 사육하기도 한다. 천연기념물 정식 명칭은 '매'이다.

송골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송골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松鶻 사전 표기 요약	●→	—	—	—	—	—
숑골 사전 표기 요약	—	●→	—	—	—	—
송골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松鶻
  15세기
- 숑골
  16세기

- 송골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松鶻, 숑골, 송골

송골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송골’은 15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松鶻’로 나타나고 16세기부터 한글로 표기한 ‘숑골’로 나타난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16세기부터 종성의 ‘ㆁ’이 ‘ㅇ’으로 표기되고,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가 ‘ㅏ, ㅓ, ㅗ,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송골’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숑골’, ‘숑골’은 16세기 이후 ‘숑고리’, ‘송고리’, 18세기 이후 ‘송골매’와 동의어로 쓰였다.

문헌 속의 송골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5세기 松鶻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松鶻

출처 1459 월인석보 23:44ㄴ

용례 01

문헌 용례

鶻은 松鶻 類라.

현대어 풀이

골은 송골 류이다.

16세기 송골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송골

출처 1527 훈몽자회 상:8ㄴ

용례 02

문헌 용례

海靑 숑골.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송골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송골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3

문헌 용례

송골.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4

문헌 용례

송골.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송골의 보충 설명

‘숑골’은 몽고어에서 매를 뜻하는 ‘Šinqor/Šongqor’을 차용한 것이다. 15세기 초에 간행된 ≪조선관역어≫에서는 ‘海靑(해청)’, ‘寵谷埋(총곡매)’, ‘害逞(해령)’으로 실려 있기도 하다. ‘숑골’이 ≪태종실록≫ 태종 11년(1411) 10월 15일 기사의 ‘松鶻(송골)’, ≪세종실록≫ 세종 29년(1447) 4월 11일 등의 기사의 ‘松骨(송골)’에서 보듯이 한문에서는 조선 초부터 한자 ‘松鶻(송골)’, ‘松骨(송골)’로 표기되어 나타났다.

송골 관련 낱말

송고리, 송골매



- 송골매명사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이며 작은 짐승이나 새를 잡아먹고 사는 검은 갈색의 사나운 새.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송골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이기문 2025 《어원 사전》 깊은 뿌리
- 이기문 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남풍현 1985 민간어원 수제 ≪국어학≫ 15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송골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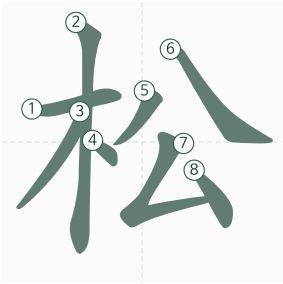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松

뜻·음 소나무 송

총 8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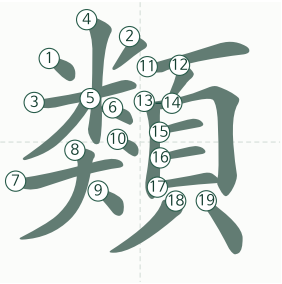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松/

類

뜻·음 무리 류

총 19획 · 부수 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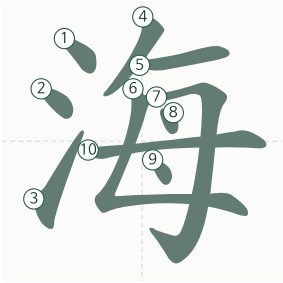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類/

海

뜻·음 바다 해

총 10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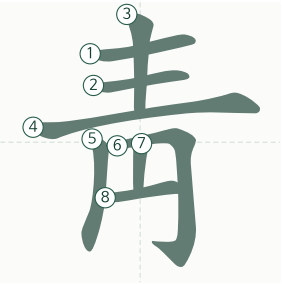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海/

靑

뜻·음 푸를 청

총 8획 · 부수 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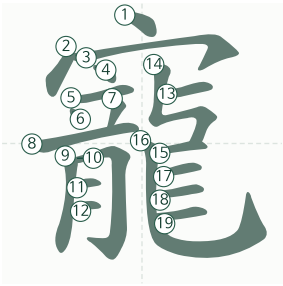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靑/

寵

뜻·음 사랑할 총

총 19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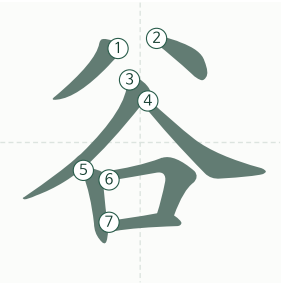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寵/

谷

뜻·음 골 곡

총 7획 · 부수 谷





hanja.wordrow.kr/한자/谷/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2 / 3 · 1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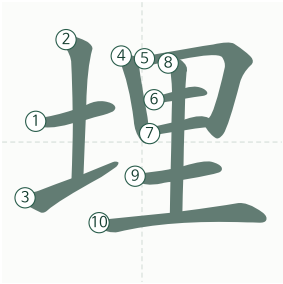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埋

뜻·음 묻을 매

총 10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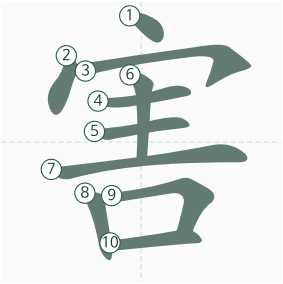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埋/

害

뜻·음 해할 해

총 10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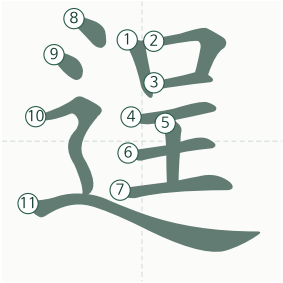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害/

逞

뜻·음 쾌할 령

총 11획 · 부수 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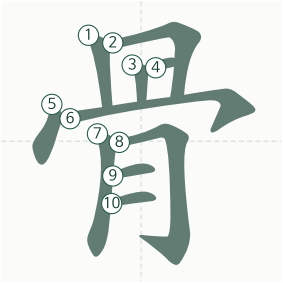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逞/

骨

뜻·음 뼈 골

총 10획 · 부수 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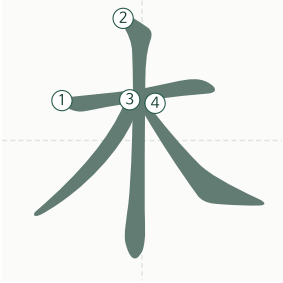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骨/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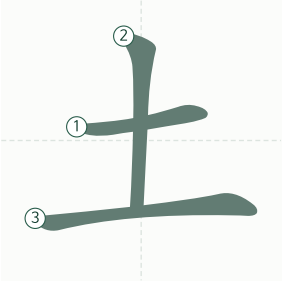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木/

土

뜻·음 흙 토

총 3획 · 부수 土





hanja.wordrow.kr/한자/土/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3 / 3 · 1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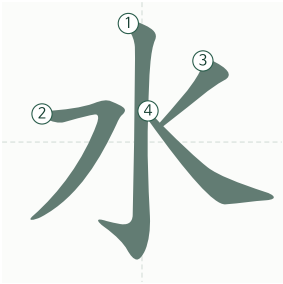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水

뜻·음 물 수

총 4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水/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鵲 · 靑 · 宀 · 走.